

# 석유·에너지 정책의 산실

## 동력자원부 자원정책실

이 자료는 「나라경제」(국민경제제도 연구원 발행) 3월호에 게재된 양승현기자(서울신문)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편집자註)

걸프사태의 상황전개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원유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자원정책실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2차 오일쇼크의 파고가 국내경제를 모질게 뒤흔들어 놓던 지난 '80년 1월이었다. 당시 양윤세 동력자원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기름값을 일거에 59.4%나

올린다는 유가인상안을 전격 발표했다. '해도 너무한다'는 소비자들의 원성이 들끓었고 국민들의 지탄이 한몸에 쏟아졌다.



문제는 이게 아니었다. 기름값 대폭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호소하던 양 장관의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웃는 낯으로 비쳤던 것이다.

다음날 동력자원부에는 ‘국민들은 울상인 판에 석유의 안정공급을 책임져야할 주무장관이 기름값을 60% 가까이 올리면서 웃을 수 있는냐’는 비난의 전화가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 쇄도했다.

사실 양 장관이 당시 기자회견때 웃었던 것은 아니다. 그의 덧니 때문에 웃는 모습으로 비쳤을 뿐이다.

이 일이 있고부터는 동력자원부 안에서는 마음대로 웃을 수도 없다는 얘기가 인구에 회자했다.

어찌보면 한도 탈도 많았던 ‘그때 그 시절’로부터 정확히 11년이 지난 오늘, 다시 걸프전의 파고가 국내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2차 오일쇼크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당시 원유수급을 책임졌던 석유국이 자원정책실로 확대, 개편된 데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TV에 나가 마음껏 웃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11년 동안의 술한 경험이 웃을 수 있는 자원정책실로 그 위치를 바꾸어 놓은 것이다. 걸프전 이후 자원정책실은 기자들 사이에 ‘TV 텔런트실’로 불린다.

장석정 자원정책실장, 이동규 석유조정관, 김관영 석유정책과장, 이승웅 원유과장, 김경석 석유수급과장 등 거의 모든 간부들이 한두번 정도는 TV에 출연했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직원들도

걸프전 직후 3~4일 동안 사무실에서 계속된 양방송국의 생중계로 모두 한차례 이상씩 TV화면에 모습을 보였다.

한데 과거와 달리 TV에 비친 이들 자원정책실 사람들의 모습은 의외로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다.

매번 TV에 나가서 ‘원유도입이 전면 중단된다 하더라도 90일 이상 쓸 수 있는 1억7백만배럴의 원유 및 석유류제품 비축물량이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다’고 제스



처까지 써가며 강조했다.

물론 이는 원유수급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걸프전의 암운이, 그 소용돌이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속에서 이처럼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동력자원부의 위상과 자원정책실의 입지가 탄탄해져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동력자원부의 전력 · 광무 · 자원개발 등 많은 핵심부서 중 ‘꽃’이라 불리는 ‘자원정책실’

자원정책실은 '78년 1월 1일 동력자원부가 출범할 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석유국으로 출발했다. 2차 오일쇼크로 국민들 사이에 에너지의 중요성이 고조되기 시작하고 정책 또한 주탄종유에서 주유종탄으로 바뀌면서 '82년 4월 7일 1급관리를 수장으로 둔 자원정책실로 확대 · 개편된 것이다.

석유국장(2급)을 실장 밑의 스텝인 석유조정관으로 개편하고, 과도 석유정책 · 원유 · 석유수급 · 가스 · 유전개발등 5개로 확대했으며 직원도 모두 52명으로 늘어났다.

업무도 다양해지고 방대해졌다. 동력자원부의 출범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 자원정책실의 업무는 일단 석유위기를 진화하는 소방수 역할에 치중해 왔다. 내외의 상황 때문이긴 하지만 쉽게 말하면 산유국을 찾아다니며 석유를 구하는 일이 주업무였다. 미래를 예측하고 차분히 정책을 집행할 겨를이 거의 없었던 셈이다. 시대 흐름 및 상황의 변동에 따라 민감한 변화를 거듭했다고나 할까, 따라서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소속부서별로 주요업무의 골자를 간추려 보면, 자원정책실의 만행적인 석유정책과는 말 그대로 가격 · 석유산업구조 · 소비절약 등 석유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입안하는 곳이다.

경제기획원과는 국내 기름값 조정문제를 놓고 줄다리기중이며, 재무부와는 유가상승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보전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탁된 석유사업기금의 인출문제를

놓고, 교통·총무·공보처 등과는 걸프전 이후 시행된 에너지소비절약 문제를 놓고 각종 대책을 협의 중이다.

또 '고래'로 비유되는 정유회사들을 상대로 가격자유화·유통업진출 허용등 향후 국내 정유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의견수렴이 한창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법안도 마련 중이다.

때문에 석유정책과장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석유정책의 방향을 잡느라 하루종일 분주하다.

협약차 관련 부처를 찾아다니느라, 정유회사에 전화거느라, 심지어는 석유 관련 기사를 놓고 '잘못됐다'는 지적을 서슴지 않아 출입기자들과 입씨름하느라 시간가는 줄 모른다.

원유과는 원유의 안정적인 확보를 책임지고 있는 과이다. 모자라도 걱정, 남아도 걱정인 것이 석유인만큼 '잘해야 본전'이라는 얘기를 이과 직원들에게 가끔 듣는다.

그래도 걸프전 같은 상황이 터지게 되면 가장 바쁜 과 중의 하나이다.

정유회사들의 원유도입 스케줄을 매일 체크하고 국제원유시장의 가격동향을 분석하며 원유의 안정 확보를 위해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일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원유 및 석유류 제품의 비축이다.

비축의 적정규모는 얼마이며 어느 시기에 비축원유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가를 이 과에서 판단한다. 물론 비축유에 대한 관리도 책임지고 있다.

“

**석유·가스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를 다루는 자원 정책실은 동력자원부 업무의 거의 절반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회임기간이 길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효과가 드러나 차분하게 장기정책을 펴고 점차 각광받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

만약 원유도입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게 될 경우 불똥은 이 과로 튀게 될 때문인지 담당과장은 매일 아침 정성스레(?) 기자실에 들른다. “오늘도 아무 문제없이 순조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지 이 말을 기자들에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석유수급과는 휘발유·등유·경유·병커C유 등의 제품수요를 측정하고 이들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무리없이 공급하는 일을 맡고

있다.

정유회사들의 제품생산량을 챙기고 날씨·기온 등으로 제품수송이 어렵고 가수요로 인한 수급차질이 생길 경우 이에 대처하는 곳이다.

걸프전이 터져 일부 물지각한 소비자들이 마구 등·경유의 사재기에 나섰을 때도 정부비축 물량을 과감히 방출, 수요를 잠재운 곳도 바로 이 과이다. 또 하나 정유회사의 원유정제 시설에 대한 신·증설 허가도 여기서 다룬다. 최근 쌍용정유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와 설립하려고 재무부에 외국인 투자인가 신청을 낸 '한·사우디아라비아정유회사' 허가문제는 이 과의 최대 현안이자 가장 큰 골칫거리이다. 자칫하면 현 시장질서를 깬다는 이유로 유공·호남정유 등 다른 정유사들로부터 원성을 사게 됨은 물론 민간기업의 이전투구에 말려들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가스관리·기획과로 양분된 가스

걸프전 이후 시행된 에너지 소비절약 문제를 놓고 관계부처와 각종 대책을 협의 중이다.



과는 요즘 야심찬 계획을 추진중이다. 전국 배관망 건설사업이 그것이다. 액화천연가스(LNG)는 사용하기가 편리하나 배관이 설치되어야 쓸 수 있다. 때문에 수도권을 비롯 부산·대구·대전·광주·전주 등 전국 대도시에 배관망을 깔아 국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주목적이다.

이러한 가스의 공급외에 물량을 확보하는 일도 이 부서가 책임지고 있다. 날로 늘어나는 LNG의 물량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추가 도입계약을 서두르고 있으며 수송용·가정용 등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액화석유가스(LPG)·부탄 등도 이 과의 업무영역안에 포함되어 있다.

가스하면 그 종류가 무엇이든, 무슨 일이든 이 과에서 맡고 있다.

유전개발과는 국·내외 유전개발을 담당한다. 바꿔 말해 산유국의 꿈—그 부푼 희망과 실낱같은 가능성에 줄기차게 도전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해 8월 대륙붕 6-1광구 돌고래 6구조에서 가스분출사고가 터졌을 때만 해도 상당히 희망에 들떠 있었다. 이제 우리도 산유국의 대열에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기대로 가득찼다.

지금은 실패로 끝나 두성호를 서해안 1광구(인천 앞바다)로 옮겼지만 유전개발과가 있는 한 석유탐사작업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이 과의 존재의의는 수천m 땅과 바다 밑을 뚫어 석유나 가스를 찾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

개발이 아닌 해외유전개발도 이 과에서 다루고 있다.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주고(성공불용자) 이에 대한 허가업무도 맡고 있다.

해외개발사업 중 북예멘 마리브 유전은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그러나 아직 본전도 못 거둔 인도네시아 마두라유전은 전형적인 실패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들 말고 현재 추진중인 개발사업도 많다. 이집트의 칼다·북자파라나광구 개발, 리비아·콜롬비아 광구 개발등이 그것이며 특히 이집트 북자파라나광구는 초대형유전으로 알려져 전도가 무척 밝은 상태이다.

이와같이 석유·가스의 발 끝에서 머리 끝까지를 다루는 자원정책실은 동력자원부 업무의 거의 절반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업무들은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어 우선은 할 일없이 노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 빛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중요성에 비해 정책적 관심이 그에 상응하지 못했고 문제가 생길 때나 챙기는 희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동력자원부관료들은 에너지자원정책을 '1일 용병을 위해 1백일 양병하는'兵法에 곧잘 비유한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인삼농사 처럼 만장래에 결실이 나타나는 국민 경제의 밑거름이라는 긍지와 그런데도 그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발심리가 범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1백일 양병'의 효과가 드러나 차분하게 장기정책을 펴고 점차 각광받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직원들은 입을 모은다.

대표적인 장기정책으로는 바로 석유류제품가격 자율화, 유통부문 업 개방, 남북송유관 건설, 비축기지 추가 건설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정책은 산업정책의 뒷전처럼 생각되던 과거에 비하면 비약적인 발전이며, 경제의 한 귀퉁이를 다루면서도 경제논리로 풀기 어려운 에너지정책의 자주선언이기도 하다.

걸프전 생중계때 모 방송기자의 끝말처럼 동력자원부는 일하는 부서이다. 발족후 13년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으며 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보면 2차 오일쇼크 때와 마찬가지로 걸프쇼크 해결이라는 원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세계의 자원은 모두 우리 것이다'라는 지금의 자세를 살려 친취적인 정책 부서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시점이다.♣